포장, 외식 눌렀다

aT, 지난해 외식업소 카드소비 분석

광주·전남 포장음식 월매출 800만원 돌파
전체 매출 721만원…2년새 115만원 줄어

지난해 광주·전남 외식업소들의 한 달 평균 매출이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00만원 넘게 빠져나갈 동안 포장음식 판매점 매출은 180만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한카드 가맹점 매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외식업소 카드소비' 분석 자료에 담겼다.

aT는 신한카드 매출액을 활용해 외식산업 전체 카드 매출금액을 시·도별, 21개 업종별로 산출해냈다. 배달앱을 통한 결제, 현금결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외식업소 한 달 평균 매출은 721만원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13.8%(-115만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평균 매출은 2019년 835만원, 2020년 734만원, 2021년 721만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광주 평균 매출은 727만원으로, 2년 전보다 19.4%(-175만원) 급감했다. 전남지역도 769만원(2019년)→718만원(2020년)→714만원(2021년) 등으로 2년 새 7.2%(-55만원) 줄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외식업소 한 달 매출은 전국 평균(1045만원)을 크게 밑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0위, 11위에 나란히 들었다.

외식업 21개 업종 가운데 7개를 살펴보니 비대면 관련 업종을 뺀 모두가 평균 매출이 줄었다.

광주·전남지역 한식 일반 음식점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681만원(광주 666만원·전남 696만원)으로, 2년 전(791만원)보다 13.9%(-110만원) 감소했다.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기관 구내식당업 매출은 광주·전남에서 37.8%(-1132만원) 급감했다.

이는 전국 평균 구내식당 매출이 3.1%(2019년 1억235만원→지난해 9918만원)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 구내식당 매출은 1710만원(2019년)→1915만원(2020년)→1236만원(2021년) 등으로 2년 새 27.7%(-474만원) 줄었다. 전남도 4283만원→3991만원→2494만원으로, 2년 동안 41.8%(-1789만원)나 급감했다.

대표적인 음식 창업 업종은 치킨집과 카페도 매출이 2년 새 20%대 줄었다.

지역 치킨 전문점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455만원(광주 437만원·전남 473만원)으로, 2년 전(635만원)보다 28.3%(-180만원) 감소했다.

커피 전문점은 광주 642만원·전남 708만원 등 675만원으로, 2년 전(857만원)보다 21.2%(-182만원) 줄었다.

광주 커피 전문점 매출 감소율은 24.9%(2019년 855만원→642만원)으로, 전국 평균 감소율 23.0%(1689만원→1301만원)를 웃돌았다.

유흥주점업 매출은 무려 30% 안팎 감소했다.

광주·전남 일반 유흥주점업들의 평균 매출은 2019년 837만원→2020년 688만원→2021년 597만원 등으로, 2년 새 28.7%(-249만원) 줄었다.

무도 유흥주점업 매출은 광주는 35.7%(2019년 575만원→지난해 370만원) 감소했고, 전남은 25.6%(2019년 523만원→지난해 389만원)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2019년 600만원대였던 '간이 포장음식 판매 전문점' 매출은 지난해 800만원대로 뛰었다.

지역 포장 전문점 평균 매출은 지난해 825만원(광주 836만원·전남 813만원)으로, 2년 전 642만원에 비해 28.4%(183만원) 급증했다.

한편 광주 외식업소 총 매출액은 2019년 2조691억원→2020년 1조7074억원→2021년 1조6523억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전남은 2019년 2조4607억원에서 2020년 2조3154억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조3292억원으로 반등했다.

외식업 업체 수는 광주의 경우 22만9273개→22만7907개→22만7144개 등으로, 2년 새 2129개(-0.9%) 사라졌다. 반면 전남은 31만9812개→32만2506개→32만6242개 등으로 2년 동안 6430개(2.0%)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 '22학번' 한자리에

윤의준 총장이 25일까지 닷새 간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환영의 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 제공〉

오늘까지 오리엔테이션
5대 분야 교과 소개·기숙사 안내
정승일 한전 사장 등 특강도

다음달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22학번'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예비 교육)에 참가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부영CC 클럽하우스 건물에 조성된 '테슬라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다.

에너지공학부 5대 분야 교과(비져너리 코스·VC) 소개와 기숙사 교육(RC)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기간 동안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과 정경미 연세대학교 교수의 특강 등도 진행된다.

한편 올해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는 학부생(단일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으로 첫해를 시작한다.

나주시 빛가람동 부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5224㎡(1580평·지하 1층~4층) 규모 개교 핵심시설 공정률은 현재 기준 99%에 달했다. 교수는 48명, 교직원 56명이 채용된 상태다.

윤의준 총장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에너지공대의 탐구기반학습 프로그램과 핵심 연구 분야 소개와 대학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신입생들의 즐거운 대학생활 안내, 에너지 공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세심하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계 금융시장 '우크라 폭탄'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
코스피 급락 2600도 위태
금값 13개월만에 최고치
알루미늄 가격 사상 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 발발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각국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찍었다.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에 들어간다는 발표에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휘청거렸다.

한국 코스피는 전장보다 30.25포인트(1.11%) 내린 2689.28에 출발한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소식에 낙폭을 키워 70.73포인트(2.60%) 떨어진 2648.80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873억원, 기관은 4856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이 1조1121억원어치 순매수해 지수 추가 하락을 막았다. 개인의 순매수액은 지난해 12월 29일(1조8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9.12포인트(3.32%) 내린 848.21에 마감했다. 지난 15일(839.92) 이후 열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3만5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5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8.55% 떨어진 3만4808.10달러(약 4185만원)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유가는 5% 이상 뛰었으며 특히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개시 발표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약 12만원)를 넘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몰렸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12% 포인트 하락해 1.90% 밑으로 내려갔고 금값도 급등했다.

금 현물은 한국시간 오후 1시 28분 기준 1.9% 상승한 온스당 1943.86달러로 지난해 1월 초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공급 우려 속에 알루미늄은 2008년 기록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2.9% 오른 t당 3388달러에 거래됐다. 아울러 니켈 가격도 2.6% 상승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48.80 (-70.73)
↓	코스닥	848.21 (-29.12)
↑	금리 (국고채 3년)	2.226 (-0.091)
↑	환율 (USD)	1202.40 (+8.80)

공정위, 중흥건설·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적다" 주식 50.75% 취득 승인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중흥 S-클래스' 브랜드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브랜드로 주택건축 사업과 함께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 1만4264개가 존재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이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 3.99%로 5위 이하 경쟁 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또 국내 건설업 시장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단독 가격을 인상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 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해도 각 시장이 안전지대(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가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에 불과한 데다,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는 24일 신관에 신규 3개 매장을 들이고 입점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MZ 세대 잡아라"

신관 '영 스트리트' 매장 새 단장…신규 브랜드 대거 입점

㈜광주신세계가 MZ 세대 수요를 겨냥하기 위해 신관(이마트 광주점 지하)에 신규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광주신세계는 이달 초부터 캐주얼·아웃도어 브랜드 등이 신관에 새롭게 문을 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패션 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던 이 공간은 지난 2019년 백화점 신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2000평(6612㎡)이었던 기존 영업 공간 규모를 500평 늘리며 광주·전남 최대 '영 스트리트' 매장으로 재탄생시켰다.

2월부터는 한 달에 걸쳐 새단장 공사를 거쳐 신규 입점 브랜드를 늘렸다. 신관에는 이달 현재 6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한 상태다.

앞서 10일에는 미국 카메라 브랜드가 내놓은 의류 브랜드 '코닥'이 문을 열었으며 '스위치 123', '커버낫', '빌보드스타일', 'NFL' 등을 잇달아 입점했다.

이들 브랜드는 입점을 기념해 각각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지역 최고의 영 스트리트 매장인 만큼 시즌마다 고객 요구를 파악해 신규 브랜드를 입점 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2월 한 달 간 젊은 고객 취향에 맞는 신규 브랜드를 다수 입점시켰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